

건국 대학교 금융연구회 리서치센터

WIBRO&Mobile

Head of Research 박종록 (H.P 010-2826-5678)
 stock-khan@hanmail.net
Senior Analyst 황봉연 (H.P 016-465-7736)
whiteby@hanmail.net
Senior Analyst 정준영 (H.P 010-6822-1263)
juron@hanmail.net

모바일 세상의 끝없는 진화 !!

WIBRO

■ 목 차

I. 산업분석 - 휴대 인터넷산업

1. 휴대 인터넷.....3page
2.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 도입일정.....6page
3. 휴대인터넷 시장 전망 및 추정.....7page
4. 휴대인터넷 사업의 Risk 요인.....9page
5. 주요 장비개발 업체 동향 및 포지셔닝 전략..10page

II. 기업분석 - 포스데이타

1. 포스데이타 소개.....15page
2. 재무정보.....16page
3. 핵심 사업에 대한 고찰.....17page
4. 주가 관련 정보.....24page
5. 결론.....25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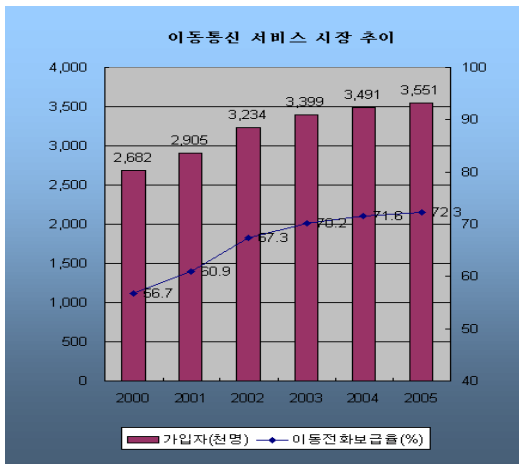


1. 휴대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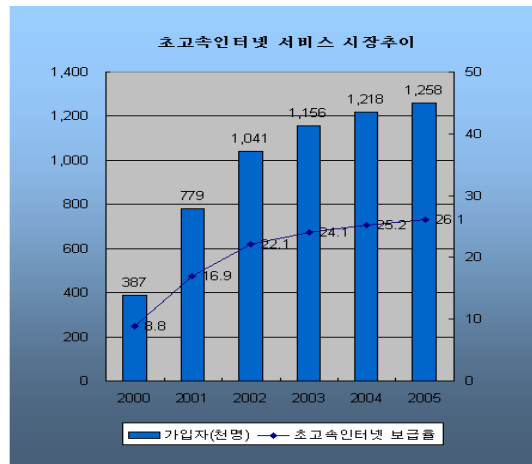
□ 최근 통신/데이터 서비스시장의 동향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이동전화서비스 기반 위에 초고속 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의 보급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하여왔다. 하지만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 추세는 시장성숙기의 도래와 더불어 2003년을 기점으로 성장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을 보면 2002년 12월 말 기준 3,234 만 명에서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3,369만 명으로 4.1% 증가에 그치고 있고, 향후 2007년까지의 성장률은 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우 또한 1998년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속도로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입자 정체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료 : 정보통신부



자료 : 정보통신부,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선인터넷 수요는 2006년까지 매년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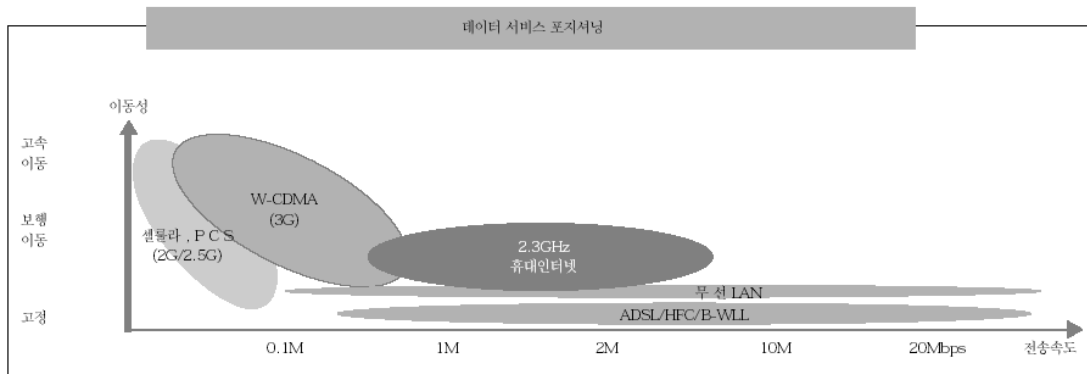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공통분모로서 휴대인터넷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장비/단말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들은 휴대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휴대인터넷의 정의

휴대인터넷은 사용자가 이동환경에서 2.3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휴대형 무선단말기로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얻거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서비스이다. 이동 중에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무선 LAN이나 이동통신기반 무선인터넷과 차별되며, 무선 LAN의 장점인 고속 데이터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대인터넷은 이동성과 커버리지 측면에서 무선 LAN과 이동통신망의 중간단계의 서비스로 유선통신의 고효율의 전송능력과 무선통신의 이동성을 모두 갖춘 유무선 융합형서비스로 향후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인터넷을 WiBRO (Wireless Broadband)사업으로 명명하고, 2005년 초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하여 2006년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데이터 서비스 관련 포지셔닝으로 음성 서비스는 관련 없음

주 : 휴대인터넷은 3.5G로 정의할 수 있음.

자료 : KT

이러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커다란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인터넷의 고속데이터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사업 수익원의 다각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대용량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무선 데이터통신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통신관련 기기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인터넷이 상용화될 경우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장비는 물론 노트북, PDA 등 휴대인터넷용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휴대인터넷과 CDMA 1X EV-DO, 무선랜과의 비교

CDMA 1X EV-DO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고속이동 중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낮은 전송속도와 고가의 요금이라는 한계가 있다. 평균 전송속도가 300Kbps로 일반 ADSL 서비스가 제공하는 1Mbps 정도의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리고 1분 가량의 동영상 다운로드 받는 요금이 3,900원 정도로 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 한편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1X EVDO 서비스의 단기간 내 대폭적인 요금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선 LAN은 1Mbps 이상의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위한 핫스팟(Hotspot) 구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비면허 대역인 2.4GHz대역을 사용함에 따라 혼신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노트북 PC, PDA로는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인터넷은 이동 중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 대역인 2.3GHz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혼신 문제가 해소되어 무선 LAN의 단점이 해결된다. 그리고 1Mbps 정도의 속도를 제공하며 이동통신망 보다 구축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3G 네트워크 구축비용의 25%로 추산) 저렴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인터넷은 기존 무선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휴대인터넷은 CDMA 1X EV-DO/W-CDMA 및 무선 LAN과의 로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무선 결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에 따라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구현되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2.4GHz 무선 LAN	2.3GHz 휴대인터넷	CDMA 1x EV-DO
커버리지	옥내(Hotspot/구내)	옥내외(도심지역 광역망)	옥내외(전국망)
전송속도	초고속	고속	중고속
이동성	정지 또는 보행	보행 또는 중속이동	고속이동
단말형태	PC, 노트북, PDA	HPC, PDA, 휴대폰	휴대폰, PDA
기지국 당 수용량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
서비스요금	낮음	상대적 저렴	높음

자료 : KT

2.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 도입 일정

□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 도입 일정

시 기	비 고
2002.12	- 2.3GHz 주파수를 '휴대인터넷' 용도로 변경
2004. 3	-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을 WIBRO로 명명
2004. 7	- 기술 표준 확정, 사업자 선정 관련한 공청회 개최
2004. 9	- WiBro 허가정책방안 확정
2004.11.29~12.3	- 허가신청 접수
2005. 2	- 허가심사 및 사업자 선정
2005. 하반기	- WIBRO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발 완료
2006. 상반기	- WIBRO 서비스 상용화

자료 : 정보통신부

□ 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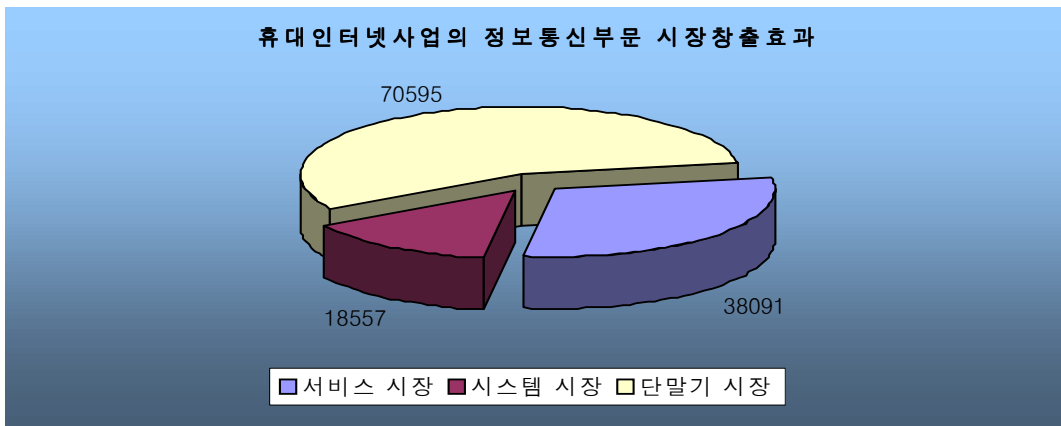
이미 호주나 미국에서는 고유의 휴대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테스트를 끝내고 일부지역에서 상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의 PBBA사는 Array comm의 휴대인터넷 기술인 'i-Burst'로 시드니 지역에서 2004년 3월부터 시험서비스를 실시중이고, 미국의 Nextel사는 Flarion사의 'Flash-OFDM' 기술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2004년 2월부터 시험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휴대인터넷서비스를 '모바일 DSL'로 정의하고 NTT컴, 소프트뱅크BB 등이 시험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Navini사의 'Ripwave'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상용화를 계획 중인데, 유럽지역에서는 이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고정형 무선접속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3. 휴대인터넷 시장 전망 및 추정

□ 휴대인터넷 사업의 정보통신 부문 시장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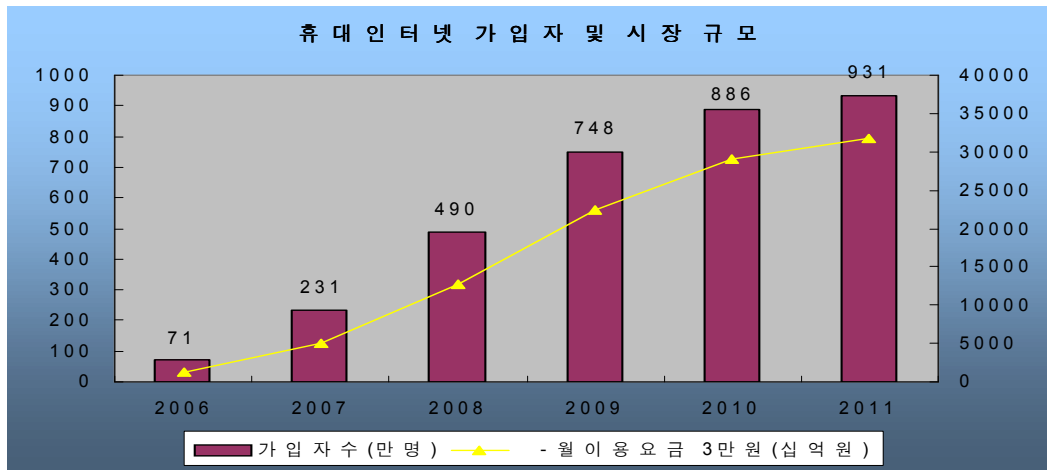
휴대인터넷 상용화 이후 5년간에 걸쳐 정보통신 부문은 12조 7천억 원의 시장을 창출하는데 서비스, 시스템, 단말기 등에서 각각 3조 8천백억 원, 1조 8천 6백억 원, 7조 6백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휴대인터넷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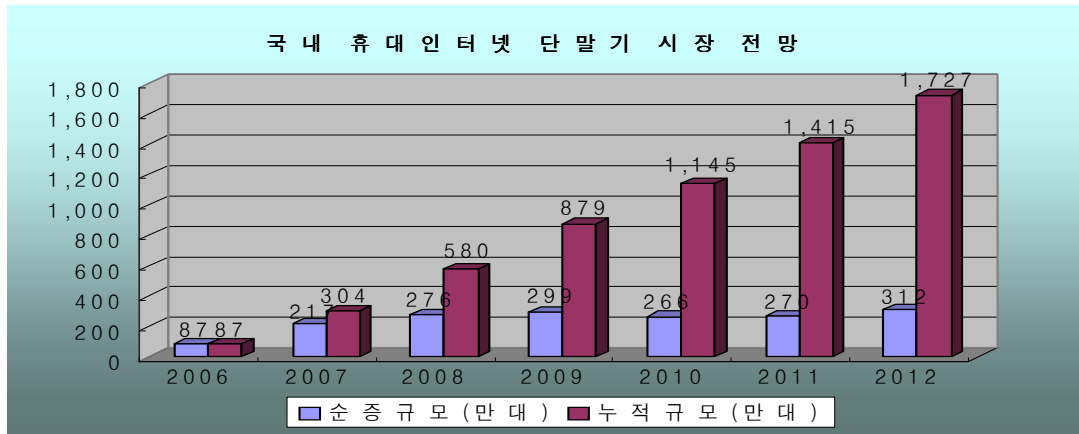
휴대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2006년 70만 명에서 2011년 이후에는 930만 명의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용요금을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시장규모는 2008년에 1조 2,717억 원, 2011년에 3조 1,701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초고속 인터넷망 및 이동통신망의 기술 진화, 휴대인터넷 콘텐츠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전망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료 : KSDI(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소), 정보통신부

□ 휴대인터넷 단말기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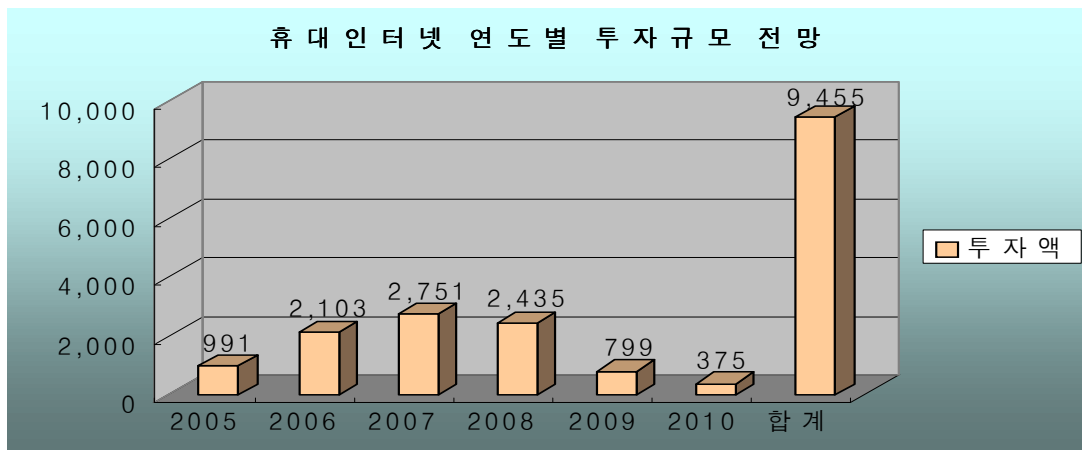
휴대인터넷 단말기 시장규모는 2006년 약 87만대에서 2012년에는 31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입자 수 전망과 단말기 교체주기를 바탕으로 산정한 다소 보수적인 수치로, 해외시장이 형성되어 단말기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 : 단기가입자의 80%가 4년마다, 나머지 20%가 5년마다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 ETRI

□ 휴대인터넷 연도별 투자 규모 전망

휴대인터넷 관련 투자지출액은 2010년까지 대략 9,4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의 데이터전송을 위한 유선백본망과 무선송수신을 위한 기지국 및 음영지역에의 원활한 전파중계를 위한 중계기 투자에 대부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인터넷은 기존의 이동통신에 비해 기지국 당 커버리지가 짧아 단위 면적당 필요 기지국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2배 내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기지국공용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전체 투자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자료 : ETRI

4. 휴대인터넷 사업의 Risk 요인

휴대인터넷은 1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이동통신 기반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단점과 무선랜의 낮은 이동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이동통신, 무선랜, 위성DMB 등과 결합한 유무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등 정체된 통신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입자규모는 2011년 이후 930만 명, 3조원에 이르는 서비스 시장, 연간 300만대 이르는 단말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휴대인터넷 사업은 W-CDMA와의 중복투자 우려, HSDPA·위성DMB 같은 유사 서비스의 출현, 기술 진화 측면에서 risk 요인을 지니고 있다.

□ W-CDMA와의 중복투자 우려

와이브로 사업신청을 한 사업자 중 SKT, KTF(KT컨소시엄)는 2003년부터 W-CDMA의 설비 투자(출연금 1조 3천억원 소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전국 81개 시로 확대하는 등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휴대인터넷 사업이 W-CDMA와의 중복투자 우려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휴대인터넷의 상용화가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경우, 휴대인터넷이 데이터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킴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휴대인터넷의 대체 서비스 존재 및 유사서비스 출현

2004년 4월 ETR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30%가 실외 및 이동 중 초고속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48.2%가 휴대인터넷에 대한 가입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으며, 휴대인터넷 처럼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국내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GDP 대비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4.7%에 이르러 OECD 가입국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등 통신비 지출 비중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신규 수요 창출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기존의 통신서비스들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을 시사한다.

현재 이동통신 기반의 무선인터넷 시장은 높은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무선 LAN 시장은 낮은 이동성과 짧은 커버리지로 인하여 가입자 4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휴대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저렴한 이용요금을 바탕으로 대용량데이터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통신 기반 무선인터넷 시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선 LAN시장의 경우 무선 LAN 대비 우월한 커버리지와 높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무선 LAN 가입자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인터넷이 상용화되는 2006년에는 이와 비슷한 성능의 유사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상용화되는 위성DMB나 2006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W-CDMA의 데이터 전용서비스인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 Release 5), EV-DO에서 발전한 EV-DV가 휴대인터넷과 대체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H/W 측면에서의 기술 진화 속도

일반적인 이동전화나 위성DMB 등의 기술에 비해 휴대인터넷 기술은 RF모듈이 설계상 복잡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부가 고성능을 요구하는 등 단말기의 소형화에 필수인 chip형태의 모뎀이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6월에 실시된 KISDI의 수요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54%가 휴대가 용이한 휴대폰형 단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적으로 노트북과 PDA 사용자는 휴대폰의 약 6.7%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휴대인터넷 단말기가 휴대폰 형태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대중화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주요 장비개발 업체 동향 및 포지셔닝 전략

국내 휴대인터넷 사업 관련 기지국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업체로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LG전자, 오소트론 등이 국내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을 반영한 기지국시스템 및 단말기 등 장비 개발을 추진 중 이다.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및 LG전자가 기지국 관련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등 통합적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소트론은 스마트안테나 등의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지국시스템 등의 장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 기술 선도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인터넷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며 본 시장에서 타사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고, Intel과의 협력 하에 국제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등 휴대인터넷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4년 12월 세계최초로 IEEE 802.16e 기반의 WIBRO 시제품을 선보이는 등 자사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사 보다 3~6개월 정도 빨리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경쟁사보다 앞서서 칩셋 및 단말기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휴대인터넷 관련 ASIC모뎀을 제작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PCMCIA card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06년 6월 상용서비스에 맞춰 관련 장비의 개발 및 적기 공급이 가능한 유력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지국시스템 등의 장비개발과 단말기로는 우선 노트북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휴대폰 형 단말기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포스데이타 - 차별화 전략

포스데이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는 달리 휴대인터넷 사업 진출이 기존 주력사업이던 SI사업에서 생소한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 업체에 비해 관련 분야의 노하우는 적지만,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휴대인터넷 장비 제조업을 선정하여 일찌감치 휴대인터넷 사업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OF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웰벨과 제휴하여 미국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2년 동안 꾸준하게 휴대인터넷 장비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환경을 구축한 점은 포스데이타의 휴대인터넷 사업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모회사인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자금동원력과 다년간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는 포스데이타의 또 다른 강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스데이타는 최근 제품 설계를 끝내고 2005년 하반기 중 현장 시험용 기지국 장비를 내놓을 예정이며, 2006년 6월 상용서비스 시기를 맞춰 상용 장비를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컨버전스 시대 도래에 따라 텔레매틱스 및 홈 네트워킹과 같은 부가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영역을 확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데이타는 자체 칩셋 개발을 통한 노트북, PDA형 단말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의 개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업체들과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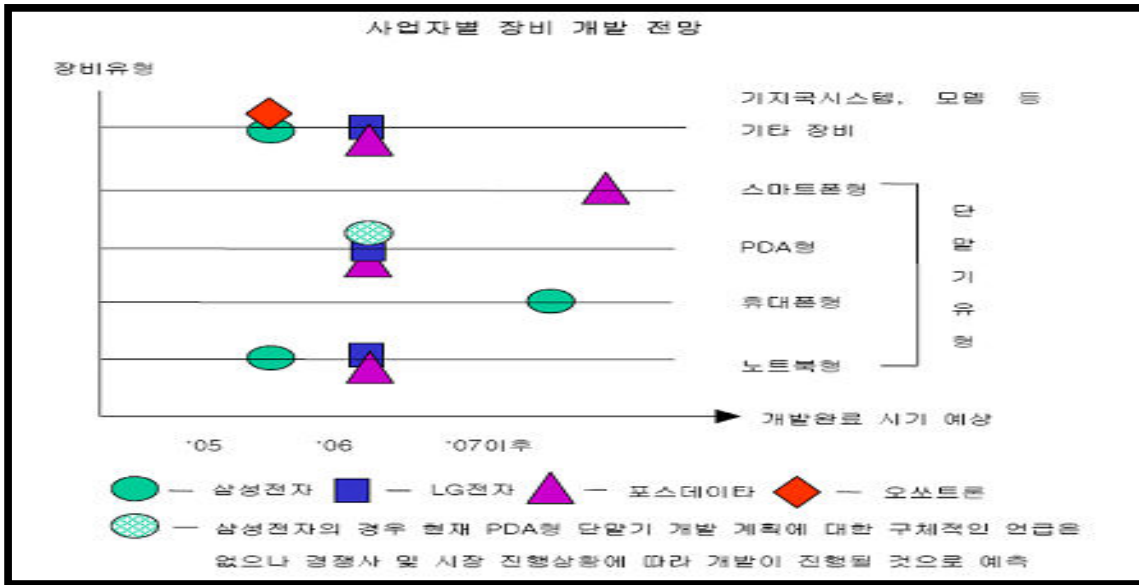
□ LG전자 - 전략적 제휴

LG전자는 HPI에 참여하지 않고, Array Comm의 'i-Burst' 기술을 바탕으로 칩셋 및 단말기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 국내기술표준이 802.16e로 정해짐에 따라 시장 전략에 큰 차질을 빚으며, 휴대인터넷 관련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입 초기에는 타사 (삼성전자, 포스데이타)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야 함에 따라 경쟁에서 다소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중인 표준기술과 국내 외 휴대인터넷 관련 핵심역량 보유 업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기지국 시스템 등의 장비개발과 노트북 및 PDA의 단말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2006년 6월 상용서비스 일정에 맞추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G전자는 미국 ArrayComm와의 제휴가 단순한 기술 제휴만이 아닌 해외시장에서의 공동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개발을 계획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경쟁사보다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오소트론 - 차세대 기술보유

넷포드와 협력중인 오소트론은 현재 HPI의 섹터드 방식보다 한 단계 앞선 스마트안테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지국 시스템 개발 과 장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소트론은 기지국 관련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등 통합적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쟁 3사와 달리 기지국 시스템과 모뎀 ASIC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 스마트안테나(Smart Antenna) : 기지국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단말기에 한꺼번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 기술



자료 (<http://www.cnetresearch.co.kr>)

- 포스테이타(022100) -

● KEYPOINT

1. M/S 기준 6.8%의 업계 5위, 철강·SOC 부문의 전문 SW/SI 업체.
2. 모회사인 포스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건실한 재무구조.
3. 포스코의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물량수주 가능
4. 자체 PI와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 향상.
5. 사업다각화의 성공 - 높은 이익기여도의 DVR 사업부문의 매출증대.
6. 휴대인터넷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경상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2002A	354.1	14.7	0.0	2.6	423	-80.2	34.6	44.9	4.8	1.4	2.7
2003A	379.8	9.8	6.1	7.2	1,175	177.8	45.2	11.5	2.5	0.9	7.2
2004F	331.5	18.9	15.7	12.2	1,995	69.8	50.6	12.4	3.7	1.5	11.3
2005F	351.2	20.2	16.9	12.3	2,005	0.5	52.5	12.4	3.5	1.4	10.5
2006F	378.4	21.5	18.3	13.2	2,162	7.8	56.0	11.5	3.3	1.3	10.4

포스데이타 - 끝없는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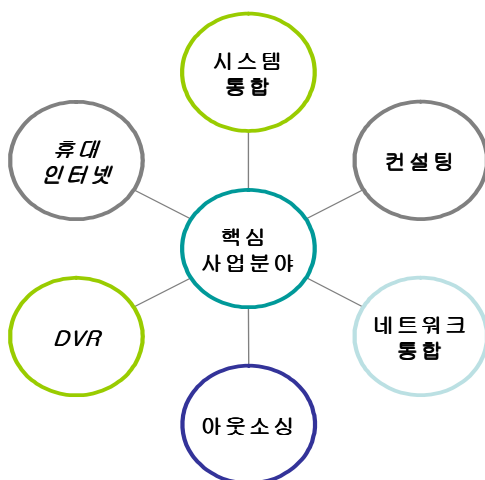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금융연구회 리서치 팀에서는 중견 SI기업인 포스데이타에 대한 기업분석을 실시하였다. 포스데이타와 관련하여 본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스데이타 소개
2. 포스데이타 사업분야에 집중분석
3. 휴대인터넷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전망
4. 휴대인터넷 분야에서의 포스데이타의 성공 가능성

1. 포스데이타 소개

포스데이타는 SI산업 시장점유율 5위(6.8%)를 유지하고 있는 중견 SI기업으로서 특히 철강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4년에 244억원(추정치)의 매출액을 기록한 DVR 제조사업, VoIP 중국시장 진출, 텔레매틱스, 리눅스 클러스터 등, 사업다각화에도 성공함으로서 종합 IT 솔루션 업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휴대인터넷의 상용화를 앞두고, 일찌감치 휴대인터넷 장비제조 분야에 진출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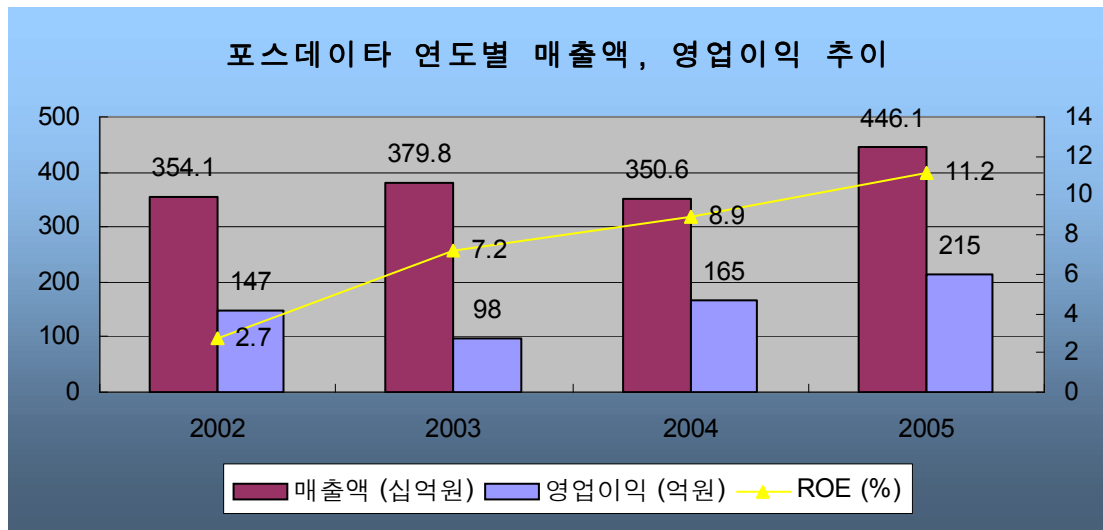


포스데이타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시스템통합, 정보시스템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 IT 아웃소싱이 있으며,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휴대인터넷 사업부문과 DVR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6개 핵심사업 이외에도 텔레매틱스, 리눅스 클러스터, VoIP(인터넷전화) 등 차세대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차세대사업분야 들을 홈 네트워킹과 같은 부가서비스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 재무정보

-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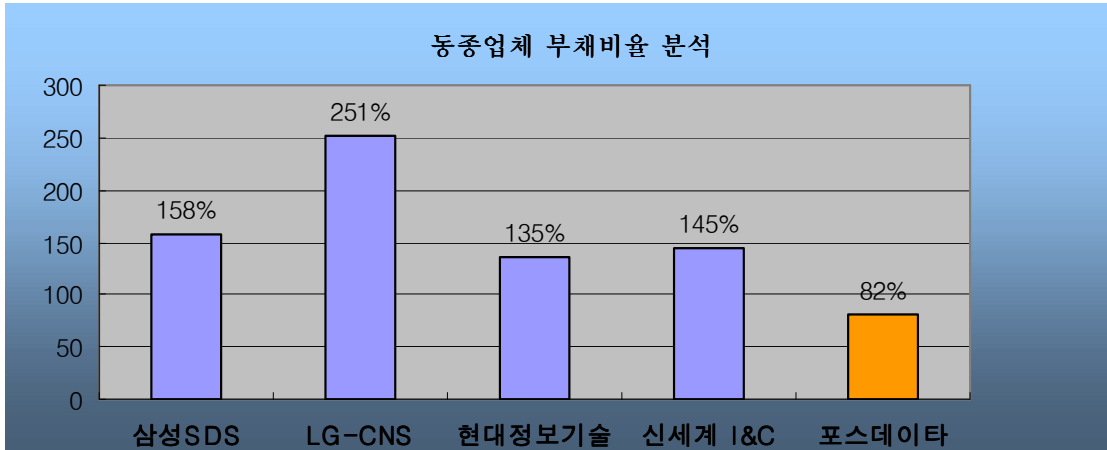
2004년 동사 매출액(예상)은 3506억 원을 기록하여 2003년 대비 약 7.69% 감소하였으나 도리어 영업이익은 98억 원에서 165.36억 원으로 약 68.73%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업이익률의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은 SI업체 전반에 걸쳐 외형성장 위주의 출혈경쟁 자체와 자체적인 PI(Process Innovation)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신수종사업인 DVR과 리눅스 클러스터사업부문의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 2004년, 2005년 통계치는 대신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국대학교 금융연구회 자체 추정치임.
자료 : 대신증권, 포스데이타

- 안정적인 재무구조 : 부채비율은 SI 업계 최저수준을 유지

동사는 2004년 2/4분기를 기준으로 82%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 업계 상위 업체들인 삼성SDS(158%), LG-CNS(251%)의 부채비율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며, SI/SW 산업 평균치인 154%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업계 최저 수준의 부채비율은 모기업인 포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끊임없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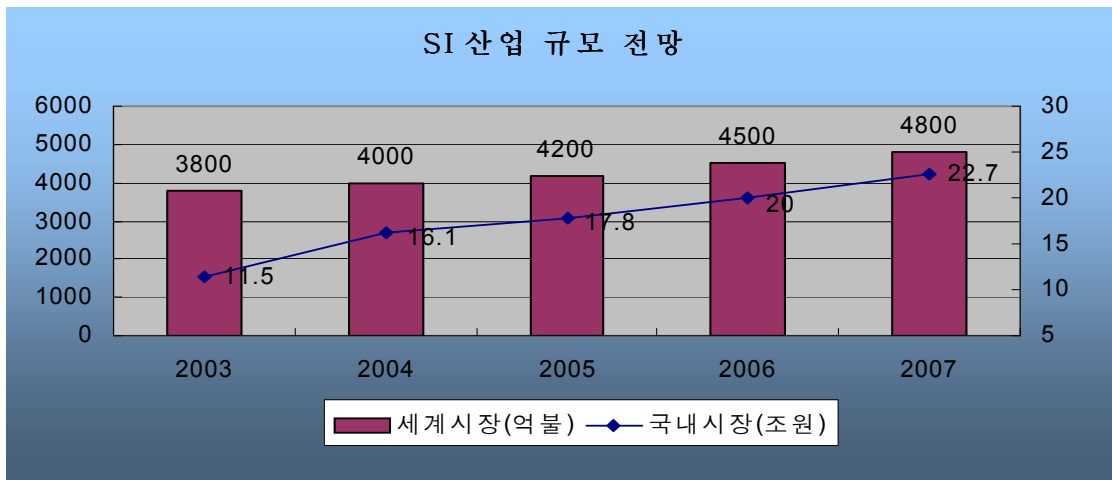
주 : 삼성SDS·LG-CNS는 03년 12월 기준, 현대정보기술·신세계I&C·포스데이타는 04년 2/4분기 기준
 각 사별 재무재표 참조.

3. 핵심 사업에 대한 고찰

(1) SI 부문

- 산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IDC와 KISDI의 전망에 따르면 2003년 SI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3800억불 기록하였으며 향후 연평균 약6%씩 성장하여 2007년에는 4,80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 11.5조원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17.6%씩 성장하여 2007년에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IDC, KISDI

- 2005년에는 수요증가와 더불어 실적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5년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정보통신분야 투자가 재개 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기업과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주를 통하여 8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수자원공사의 2차 프로젝트, NEIS 등의 수주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간의 출혈경쟁 자제와 저수익 프로젝트 수주 포기 등의 구조조정 실시, 자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수익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자정노력들은 20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스코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은 동사의 최대 강점

동사는 철강기업 포스코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의 자회사로서, 포스코의 정보통신 분야의 전 부분을 맡아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매출액 50%에 육박할 정도를 포스코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이 심한 SI업계 환경과 비교했을 때 동사에게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에도 포스코의 정보통신 위탁운영을 1628억원에 수주하여 핵심 수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스코가 호주 철광석업체인 BHP빌리턴과 공동으로 인도 오리사주에 제철소 건립할 계획이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제철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에는 동사가 정보통신 분야 시스템 전반을 담당할 것이 확실시됨으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 철강분야에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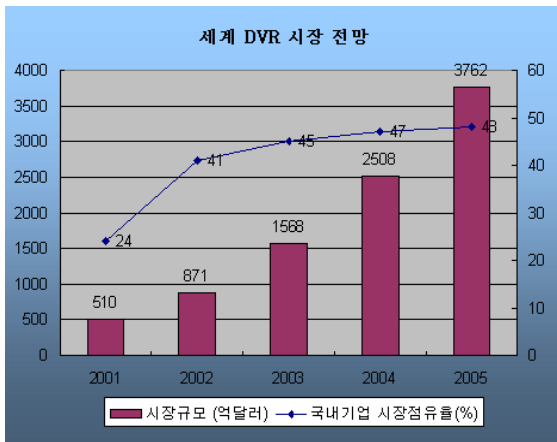
또한 동사는 포스코의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철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4년 4월에는 태국 최대 철강업체인 SSI의 통합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5월에는 연간 4백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중국 철강업체 제남강철과 2백만 달러 규모의 철강 생산관리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고 11월에는 중국 철강기업인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와 5백70만 달러 규모의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2) DVR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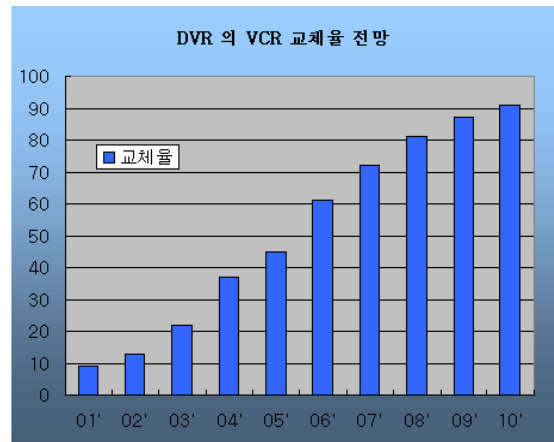
- DVR 세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DVR 시장은 화면의 고해상도와 시스템 안정성, 원격제어기능 등을 강점으로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인 보안의식 증대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보안산업 컨설턴트 업체인 J.P.Freeman과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DVR 시장규모는 25억1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내년 시장 추정치는 37억6200만 달러로 연평균 70%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총 매출 규모도 1900억 원, 내년에는 2230억 원으로 추정된다.

CCTV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계 시장의 DVR의 VCR 대체율은 36%정도이며 2005년 이후에는 VCR 시장의 50% 이상을 대체하고 2010년경에는 DVR로 완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CCTV 시스템에서 DVR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001년 2%에서 2005년 18%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DVR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정보통신부, J.P.Freeman



자료 : J.P.Freeman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차별화에 성공

동사는 고급사양, 고가격 제품을 갖추고 이에 따른 하이엔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동사의 대표적인 DVR 제품인 포스워치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Non PC 형태의 Stand Alone 제품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or)칩을 장착하여 안정성을 높인 고급사양 제품으로써, 기존의 PC기반 제품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일본시장 1위를 비롯하여 북미, 중국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급사양 제품전략은 제품차별화뿐만이 아니라, 동종업체에 의한 시장잠식 및 경쟁심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장점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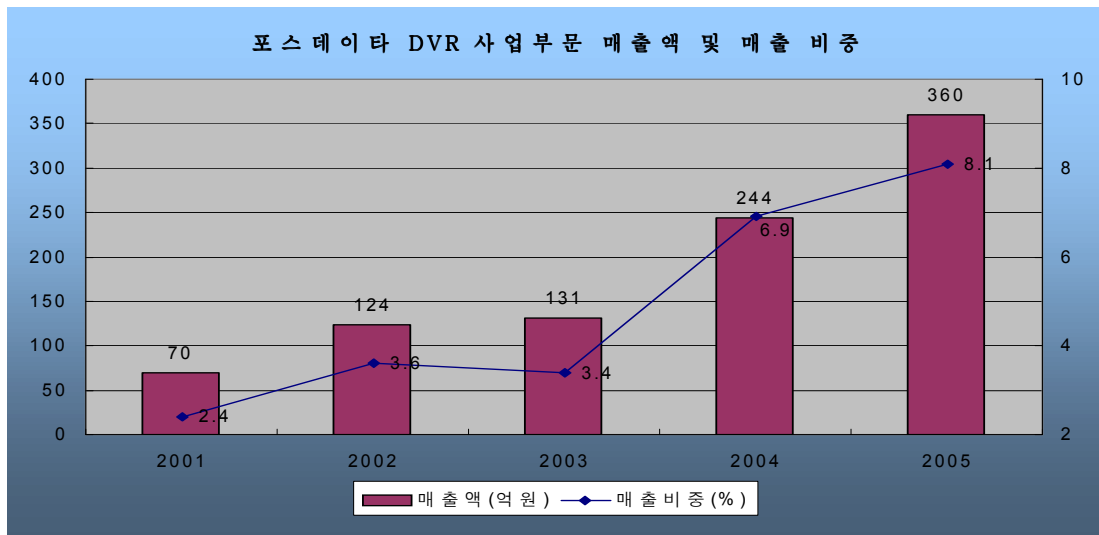
- 생산제품의 90%이상을 해외에 수출

동사의 주력제품인 '포스워치'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일본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전세계 25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일본에 2350대를 수출해 시장 점유율 1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2004년 9월에는 최근에는 미연방정부 조달 등록자격인 'GSA 스케줄1)'을 획득하여 자사의 DVR 제품인 「포스워치 PRO」를 미 연방정부에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번 자격획득에 따라 백악관을 비롯한 미 연방정부 외 주정부 기관에 별도의 조달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사의 DVR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미국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DVR 사업부문의 30%에 이르는 높은 이익기여도

동사의 DVR 사업부문의 매출액총이익률은 45%로 다른 사업부문의 매출액총이익률이 1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매출비중 상승에 따라 DVR 사업부문은 동사의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합보안(ISS : Integrated Security System)을 포함하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사업 등 기존 유관 사업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 2004년, 2005년 통계치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국대학교 금융연구회 자체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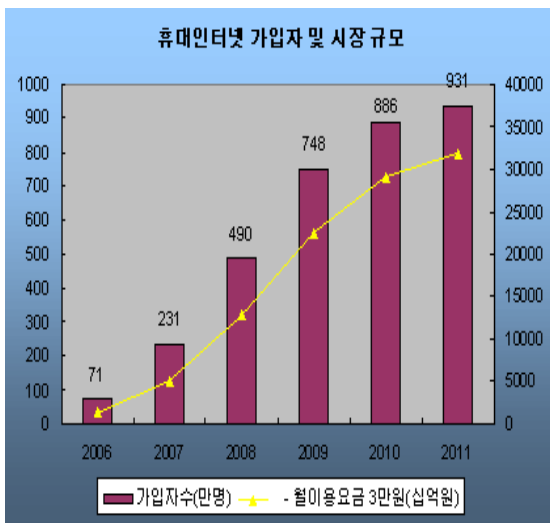
1) GSA Schedule Contract : 미 조달청이 연방기관들에게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조달방법의 하나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미 정부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제도

(3) 휴대인터넷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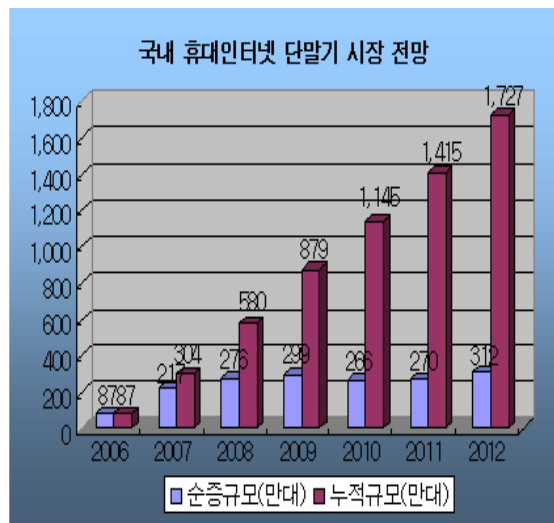
- 휴대인터넷이란?

휴대인터넷은 사용자가 이동환경에서 2.3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휴대형 무선단말기로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얻거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서비스이다. 이동 중에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무선 LAN이나 이동통신기반 무선인터넷과 차별되며, 무선 LAN의 장점인 고속 데이터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인터넷을 WiBRO (Wireless Broadband)사업으로 명명하고, 2005년 초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하여 2006년 6월에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커다란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2006년 70만 명에서 2011년 이후에는 930만 명의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요금을 3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시장규모는 2008년에 1조 2,717억 원, 2011년에 3조 1,701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휴대인터넷 단말기 시장규모는 2006년 약 87만대에서 2012년에는 31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KSDI, 정보통신부



자료 : ETRI

- 포스데이타의 차세대 주력사업

동사는 향후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휴대인터넷 장비제조업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국내외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국내의 경우 3개의 장비개발 팀과 기술전략팀, 사업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OF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웰벨과 제휴하여 미국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2002년부터 꾸준히 휴대인터넷 장비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준비와 다년간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4년 6월 TTA 표준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표준경쟁을 벌이는 등 업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제품 설계를 끝내고 2005년 하반기 중 현장 시험용 기지국 장비를 내놓을 예정이며, 2006년 6월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시기를 맞춰 상용 장비를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칩셋 개발을 통한 노트북, PDA형 단말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2007년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가장 큰 경쟁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음.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인터넷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며 본 시장에서 타사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 타 경쟁사보다 앞서는 칩셋 및 단말기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휴대인터넷 관련 ASIC모뎀을 제작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PCMCIA card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06년 6월 상용서비스에 맞춰 관련 장비의 개발 및 적기 공급이 가능한 유력 업체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지국시스템 등의 장비개발과 단말기로는 우선 노트북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휴대폰 형 단말기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초기에 Array Comm의 'i-Burst' 기술을 바탕으로 칩셋 및 단말기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 국내기술표준이 802.16e로 정해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휴대인터넷 관련 사업을 포기했다.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용화 초기에는 타사(삼성전자, 포스데이타)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야 함에 따라 경쟁에서 다소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중인 표준기술과 국내 외 휴대인터넷 관련 핵심역량 보유 업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기지국 시스템 등의 장비개발과 노트북 및 PDA의 단말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2006년 6월 상용서비스 일정에 맞추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소트론은 현재 HPI의 섹터드 방식보다 한 단계 앞선 스마트안테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기지국 시스템 개발과 장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소트론은 기지국 관련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등 통합적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쟁 3사와 달리 기지국 시스템과 모뎀 ASIC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M/S 30% 차지할 경우, 현재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3700~5300억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

시스템 시장(기지국장비 포함)은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LG전자, 오소트론 4개사가 과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단말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LG전자(초기 이후)와 칩셋을 공급받는 기존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들이 경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삼성전자 등의 대형 통신장비 업체와 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기업인 포스코의 우수한 자금지원력과 다년간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자체 보유중인 핵심기술은 동사가 시스템시장과 단말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휴대인터넷 사업부문은 2006년 상용화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인터넷 상용화 이후 5년간에 걸쳐 정보통신 부문은 12조 7천억 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시스템·단말기 등에서 각각 3조 8천백억 원, 1조 8천 6백억 원, 7조 6백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가 국내 휴대인터넷 시장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시스템 시장에서는 1200~1800억 원, 단말기 시장에서는 연간 2500~3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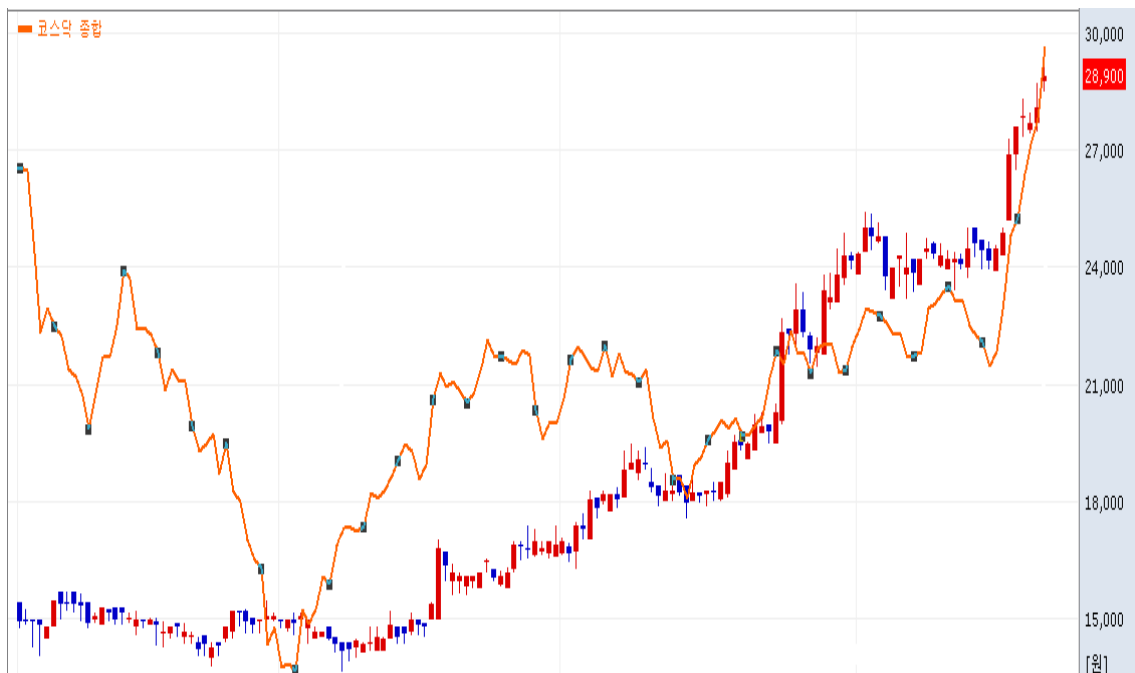
4. 주가 관련 정보

- 요약 정보

시가총액	1785 억원
발행주식수	6,155,160 주
자본금	307.8 억원
현재주가	28,050원
52주최고가 / 최저가	29,600원 / 11,100원
주요주주	포스코 65% 보유
외국인 지분율	0.68%

주 : 2005. 1. 12일 현재

- 주가 흐름



동사의 주가는 2004년 3월 12일 연중 최저가인 11,100원에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최근 거래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가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1월 12일 현재 동사의 주가는 28,050원으로서 이러한 주가 상승흐름은 실적 개선과, 코스닥 시장의 지수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 시장점유율 5위권의 중견 SI기업 : 안정적인 시장지위 확보와 수익원 확보

- ① 포스코의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2005년 포스코의 정보통신 위탁운영을 1628억원에 수주하는 등 포스코를 통한 매출이 핵심 수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② 철강분야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계속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 ③ 현재 추진 중인 포스코의 해외 현지 제철소 설립이 확정 될 경우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 DVR 분야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성공

- ① 세계 DVR 시장이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는 등 성장성이 매우 큼.
- ② 고사양의 제품을 보유하여 저가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
- ③ 자체 기술력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수익성, 마케팅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휴대인터넷 관련 핵심기술 보유 : 선두 업체로서 시장 지위 확보

- ① 기존 SI 중심에서 탈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② SI사업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IT기업으로 도약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 투자 의견 :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2004년 예상실적(동원증권 추정치)을 바탕으로 측정한 동사의 PER는 17.9배 수준으로서 현재의 주가는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은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받는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단기간 동사의 주가전망은 “시장수익률” 수준으로 예상하는 바이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가상승이 향후 동사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휴대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리서치팀에서는 휴대인터넷 부분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에는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영역인 SI와 DVR에서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제시하며 투자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
- 본 리포트에 포함된 자료 중에서 인용된 자료의 경우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일부자료는 추정치로서 실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투자의 참고자료로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리포트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의견 제시는 표지에 나와 있는 작성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리포트는 작성자의 허락 없이 배포 및 게재할 수 없습니다.
-